2026.10.17 · 전날 독해

읽기 좋은 것이 먼저 잡힌다

오늘 먼저 읽을 글은 전문 수학의 종말을 선언한 Crooked Timber의 긴 에세이입니다. 한 학문 공동체가 자신의 중요 문제를 읽기 좋게 정리해 두었더니, 그 목록을 가장 값싸게 활용한 것은 공동체 밖의 기업이었다는 진단입니다. 반대편에는 가장 읽기 어려운 것, 즉 AI 연구소 내부에만 있는 증거를 둘러싼 논쟁이 있습니다. 경제에서는 법으로 적힌 규칙과 실제 작동하는 규칙의 차이, 그리고 749개의 관세 발언을 데이터로 만든 작업을 살폈습니다.

새 글 13편 전문 독해, 8편 분석.

대상은 10월 16일 00:00~23:59 KST에 수신된 새 글입니다. 본문을 모두 읽은 뒤 골랐습니다. 출처의 주장과 제 해석을 구분하고, 원자료를 직접 재현하지 못한 수치에는 그 범위를 밝힙니다.

에릭 슐리서의 「전문 수학의 종말에 대하여」는 지난주 OpenAI의 수학 결과 공개에 대한 수학자들의 반응에서 출발합니다. 필자의 오랜 질문은 왜 소수의 자연과학이 사회과학보다 질적으로 인상적이 되었는가였고, 고인이 된 조지 스미스의 대답은 이론으로 매개된 측정에서 예상과의 어긋남이 반복 과정을 통해 고품질 증거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슐리서는 전문 수학이 바로 그런 자기조직화를 이룬 드문 공동체라고 봅니다. 열린 문제의 목록과 그 중요도에 관한 공동의 감각이 영예, 일자리, 연구비의 배분을 조정하고, 누구에게 배웠는지가 어떤 문제를 잡는지와 단단히 연결된 길드 구조입니다.

문제는 이 길드가 자신의 문제를 명시적으로 판독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개인 연구자에게는 진입 장벽이 높았지만, 그 목록 자체는 예산 제약이 사실상 없는 소수의 영리 기업에게는 쉬운 기술 과제였습니다. 저명한 수학자 다수가 자신의 연구에 LLM을 일찍 채택하면서 결과적으로 다음 세대 모델을 훈련시키는 데 기여했고, 이제 기업들이 수학적 최전선에 서는 데 필요한 자원을 쥐게 되었다는 것이 필자의 설명입니다. 그는 앞으로 어떤 인간도 그 최전선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고 씁니다. 이것은 관찰이 아니라 필자의 전망입니다.

슐리서의 예측은 두 갈래입니다. 자신의 공동 연구를 근거로, 불투명한 시스템이 결과를 생산하면 새로운 불투명성이 계속 생기므로 생산보다 검증과 인증의 일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 수학이 연습되고 고유한 기예로 미끄러져 현대미술처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진의 발명에 대한 회화의 대응에 빗댑니다. 철학은 조직이 헐거워 적대적 인수에는 덜 취약하지만, 생산 방식이 철학에 내재하지 않으므로 속이 빠지는 식의 약화에는 취약하다고 진단합니다. 제 판단으로 이 글의 힘은 낙관도 비관도 아니라, **판독 가능성이 자기통치의 조건이면서 동시에 포획의**

조건이라는 한 가지 메커니즘을 보여 준다는 데 있습니다. 다만 최전선의 인간 역할 소멸이나 수학의 예술화는 아직 검증 가능한 사실이 아니라 한 철학자의 추론으로 읽어야 합니다.

정반대 방향의 문제는 타일러 카웬이 드와케시 파텔을 인터뷰한 글에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팟캐스트 회차의 존재와 「프런티어 연구소들이 알고 우리는 모르는 것」이라는 제목을 확인했습니다. 파텔의 불만은 내부자들이 자신들을 더 걱정하게 만드는 증거가 있다고 말하면서도 공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한 AI 연구소 관계자가 9개월 안에 AI가 AI 연구에서 인간을 앞설 것이라고 말하면서 근거는 말할 수 없다고 한 일화를 전합니다. 이것은 인터뷰에서 전언된 일화이며, 근거 자체는 검증 불가능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파텔이 두려워하는 시나리오는 구체적입니다. AI가 AI 진전을 가속할수록 연구소들이 최강 모델에 가까운 것을 외부에 내놓지 않을 유인이 커지고, 그러면 내부와 외부의 정보 격차가 벌어져 규제자와 대중은 더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공개된 평가가 기술의 최전선과 접촉을 잃는 순간, 평가는 계속 돌아가도 무엇을 재는지 알 수 없게 됩니다.** 숄리서의 수학 길드는 너무 읽기 좋아서 잡아먹혔고, AI 연구는 읽을 수 없어서 감시가 불가능합니다. 제 판단으로 두 글을 나란히 놓으면 같은 문제의 양면이 보입니다. 무엇을 공개할지가 곧 누가 판단할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노동 정치에서는 인도의 노동법이 독일보다 더 제약적이라는 Marginal Revolution의 글을 남깁니다. 타바록과 라자고팔란이 쓴 책에서 가져온 개념은 조기 모방입니다. 인도가 선진국 수준의 법을 훨씬 낮은 국가 역량으로 갖추면서 부작용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례는 근로시간입니다. 인도는 초과근무에 통상 임금의 두 배를 지급해야 하고 분기당 초과근무 상한이 144시간이며 주 단위로 규제합니다. 인도의 초과근무 2배 규정은 새 노동규칙에 관한 외부 보도에서도 확인했습니다. 독일은 법정 초과근무 가산이 없고, 하루 10시간·주 평균 48시간을 6개월 기간 안에서 평균으로 맞추는 방식으로 유연성을 허용합니다.

글에 인용된 비교는 500명의 동일한 전자공장이 3개월 안에 아이폰 1만 대 주문을 처리한다는 가상 실험입니다. 인도 공장은 13.7주로 가장 빠른 공장보다 23% 느리고, 대당 노동시간 비용이 비용 최전선보다 18% 이상 높다고 계산합니다. 같은 임금이라는 가정에서는 독일에서 만드는 것이 더 싸고 빠르다는 결론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수치들이 관측된 생산 데이터가 아니라 저자들의 가상 계산**이라는 점입니다. 임금도 생산성도 실제로 같지 않으므로, 이 계산이 분리해 보여 주는 것은 규제의 경직성 자체의 비용입니다. 그리고 그 비용 때문에 작은 기업들은 규정을 회피하지만, 인도가 유치하려는 폭스콘 규모의 외국 기업은 법대로 따라야 한다는 역설이 생깁니다. 법이 엄격할수록 법을 지킬 수 있는 큰 기업만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측정의 문제는 미국 경제 글 두 편에서도 나타납니다. Conversable Economist은 브라운대 글로벌 링케이지 연구실이 대통령이 관세에 숫자를 붙인 모든 발언을 추적한 데이터베이스 TiRADE를 소개합니다. 데이터셋의 공개를 확인했고, 글에 따르면 2025년 1월 21일 이후 749건의 발언이 341건의 서로 다른 관세 변경에 해당합니다. 위협과 발표를 파란 점으로, 실제 시행을 초록 점으로 구분한 그림이

전하는 것은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입니다. 필자는 광범한 관세 인상에는 반대한다고 밝히면서도, 이 그림이 보여 주는 것이 일관된 계획이 아니라 즉흥적인 난맥이라고 평가합니다. 749건이라는 집계는 글이 전하는 데이터셋 설명입니다.

Econbrowser는 측정되는 물가와 체감 물가의 차이를 다룹니다. 일상경비지수가 2월 이후 소비자물가지수보다 빠르게 오르고 있어 일상 지출이 더 빨리 오른다는 체감이 통계적으로 확인된다고 씁니다. 각 지수로 실질 시급을 나눈 그림과, 생산자물가가 소비자물가보다 훨씬 빨리 오르고 그 선행 요인이 연료라는 관찰이 이어집니다. 이것은 미국 노동통계청과 AIER 계열 지표에 대한 저자의 판독이며, 생산자물가가 소비자물가를 선행한다는 것은 저자의 기대입니다. 같은 물가를 어느 바구니로 재느냐가 실질 임금의 부호를 바꿀 수 있다는 점이 오늘 경제 글들의 공통 주제입니다.

철학 소식 하나는 따로 전해야 합니다. 에릭 슈비츠겔이 암 진단을 공개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신장암이 엉덩이와 등, 흉막으로 퍼진 것으로 보이며, 혈액검사가 정상이라 진행이 느린 편이고 생명이 즉각 위험한 상태는 아니라고 씁니다. 새로운 치료법에 기대를 걸고 있고, 블로그 활동은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난 동료 철학자 헬렌 더 크루스를 본받고 싶다는 대목이 있습니다. 20년 넘게 주 1회 이상 글을 써 온 블로그이고, 사용자께서도 오래 구독해 온 곳이라 짧게라도 전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것은 본인의 자기 보고이며 의학적 세부는 독립적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만화에서는 TCJ의 주간 링크 정리에서 세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첫째, 『유리의 성』 『백마의 소녀』의 와타나베 마사코가 97세로 별세했습니다. 한국 언론 보도에서도 순정만화 개척자로 확인됩니다. 둘째, 올해 하비상에서 스나이더와 드라고타의 Absolute Batman이 최우수 도서, 우라사와 나오키와 나가사키 다카시의 Billy Bat이 최우수 만화로 선정됐습니다. 수상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셋째, 데즈카 오사무의 『긴 구덩이』가 호세이대학 출판부에서 다시 출간됐는데, 마이니치 보도에 따르면 이 작품은 재일 한국인 차별을 직접 다뤄 기존 전집에서 빠져 있던 작품입니다.

같은 정리 글에는 산업 소식도 있습니다. 파라마운트와 워너 브라더스 디스커버리의 합병 뒤 DC 코믹스가 스카이댄스의 상품·출판 부문으로 편입됐고, 다이아몬드 파산 사태의 합의들이 마무리되며, 앙굴렘 페스티벌을 둘러싼 소송은 새 운영사 쪽으로 정리됐습니다. 제 판단으로 이 세 소식은 하나의 방향을 가리킵니다. 대형 만화 출판이 기술자본의 사업부로 흡수되고, 유통 파산과 축제 갈등이 정리되는 사이, **만화의 기념비적 위치는 우라사와와 와타나베 같은 작가들의 이름으로 회계가 정리되고 있습니다.** 재일 차별을 다룬 데즈카의 잊힌 작품이 이 시점에 복간되는 것도 같은 시대의 결산으로 읽힙니다.

종교 연재에서는 Experimental Theology가 노리치의 줄리언 『계시』 24장 전문을 옮겼습니다. 상처 난 옆구리 안에 구원받을 모든 인류가 평화와 사랑으로 쉴 만큼 넓은 자리가 있다는 환시입니다. 두 조각 난 그리스도의 심장 묘사는 전통 안에서 가장 이른 성심 묘사 가운데 하나로 소개됩니다. 필자는 이 장을 거의 설명 없이 인용하고, 상처가 아름답고 기쁜 자리로 묘사된다는 점만 짚습니다. 제 판단으로

이 연재가 계속 보여 주는 것은 고통의 기록이 어떻게 위안의 문법으로 번역되는가인데, 이번 장은 번역을 거의 하지 않고 원문을 그대로 건네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오늘 글들을 잇는 것은 읽기의 정치입니다. 수학 길드는 문제를 읽기 좋게 만들어 스스로를 규율했고 그 목록이 포획의 지도가 됐습니다. AI 연구소는 증거를 읽을 수 없게 만들어 감시를 피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노동법은 종이 위에서 가장 엄격하게 읽히지만 현장에서는 회피로 읽힙니다. 관세 정책은 749개의 발언으로 셀 수 있게 된 뒤에야 난맥임이 보입니다. **무엇이 판독 가능한가가 곧 무엇이 지배 가능한가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독해는 읽기 좋은 것을 경계하는 일이었습니다.

꼭 읽을 글은 숄리서의 수학 길드 에세이와 파텔 인터뷰입니다. 앞의 것이 공개된 지식 공동체의 운명을 묻는다면 뒤의 것은 비공개 증거의 정치를 묻습니다. 노동 쪽에서는 인도 노동법 글이 개념과 계산을 함께 보여 줍니다. 만화는 TCJ 주간 정리에서 와타나베 마사코의 부고와 『긴 구덩이』 복간 소식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독해 범위를 밝힙니다. 인도 비교 수치는 원 저자들의 가상 계산을 글이 인용한 것이며 원 논문 전체를 읽지 않았습니다. 파텔의 일화는 인터뷰 전언이고 근거는 비공개입니다. TiRADE 집계는 글이 전하는 데이터셋 설명이며 개별 발언을 다시 세지 않았습니다. 슈비츠겔의 병세는 본인 보고입니다. 만화 소식은 외부 보도로 사실관계를 확인했지만 원작들을 읽은 것은 아닙니다. 서로 다른 글을 연결한 판단은 제 해석입니다.